

우리나라 도서관은 '책의 납골당' 인가

거의 모든 책의 입구에는 서문이나 감사의 말이 기념비처럼 세워져 있다. 여기서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나오기도 하고 핵심 내용이나 주장을 요약하기도 한다. 또한 집필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헌사도 으레 따르게 마련이다. 대개 가족이나 동료, 출판사 대표 및 편집자들이 말의 꽃다발을 받는 주인공들이다.

번역서의 서문이나 감사의 말에는 도서관 사서들이 헌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헨리 페트로스키의 《서가에 꽃힌 책》(지호)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은이는 서문의 절반 이상을 도서관, 사서,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로 채우고 있다. 책꽃이의 역사를 주제로 삼았으니 당연한 듯하지만 그저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대목이 있다.

그는 도서관을 '보물창고'로 비유한다. "장서가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도서관들 간의 대역가 가능해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도 쉽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지식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박학한 지식으로 서가를 안내하고 설명해준 한 사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국내의 한 학술지에 실려 있다. 《민족문화사연구》제14호에 실린 논문〈근대 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가 그것으로, 부산대 강명관 교수는 '덧붙이는 말'에서 국내 도서관의 한심한 실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그는 소장 귀중본을 자랑만 할 뿐 열람하는 데 인색한 도서관을 '책의 납골당'으로 풍자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책은 귀중본 도장이 찍히면 그날로 세상과 영영 하직이다. 귀중본에 관한 한 도서관 사서는 철벽의 골키퍼이다. 도서관에서 특정 책을 보여주지 않으면 '귀중본' 도장을 찍으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귀중본이 많은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실로 책의 '납골당'이다."

그는 특히 대학도서관의 인색한 행태에 혀를 내두른다. 그에 따르면, 각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귀중본 도서목록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학교의 자랑거리로 삼는다. 그리고는 이 소중한 자료들이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 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도서관에 찾아가서 이용하자고 하면 도리질을 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목록은 왜 내었으며 자랑은 왜 하는가?" 하는 게 그의 항변이다.

'보물창고'와 '납골당', 그리고 '해박한 조력자'와 '철벽의 골키퍼'. 두 나라 도서관을 갈라놓은 수사학과 거리는 이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라는 낡은 이분법이 도서관 문화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모양이다. 쥐꼬리만한 도서관 예산마저 깎으려 드는 정부 당국자의 한심한 셈법을 질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골당에서 신음하는 책을 구출하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 박천홍기자

1991년부터 쌓아 온 한국프리랜서그룹의
노하우는 「부끄럽지 않은 품질」입니다.

편집 디자인(사보, 사사, 홍보물, 교재 등) ● 자서전, 회고록집필 ● 교정 · 교열 · 윤문
● 사사(社史)집필제작 ● 취재대행 ● DB자료입력 ● 사보제작 ● 번역

Since1991-----
(주)한국프리랜서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11(한서빌딩1105호)
Tel:(02)784-4447 Fax:(02)784-4404
E-mail: kfb@koreafreelancer.com
www.efreelancer.co.kr

※각 분야 전문가 모집(홈페이지 접수)